

오로지 '法'에 의지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3. 우리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

귀의라는 것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에 관해 우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매우 정밀한 인간음미(吟味)의 발자취와 인간 해석의 모습을 엿보아 왔다. 거기에는 변화해 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그 인간은 자칫하면 약(藥)으로 기울어지며 약을 좋아하게 된다.

선(善)을 사들려라.
마음을 악에서부터 멀리하라.
선을 행하는데 게으른자는 그 마음 악을 좋아하게 된다.

『법구경(法句經)』의 이 한 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에 의해서 능히 마음을 악에서부터 멀리하며 선에 다가갈지라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그 믿음의 표현을 언제나 '삼보귀의(三寶歸依)'로 행한다. 그것의 가장 오랜 모습은 율장 대품에 쓰여 있는 '삼귀의 삼창'이다.

부처님에게 귀의하옵나니. 법에 귀의하옵나니. 승에 귀의하옵나니.
두 번 다시 부처님에게 귀의하옵나니. 두 번 다시 법에 귀의하옵나니. 두 번 다시 승에 귀의하옵나니.
세 번 다시 부처님에게 귀의하옵나니. 세 번 다시 법에 귀의하옵나니. 세 번 다시 승에 귀의하옵나니.

부처님은 전도를 시작하지 얼마 후에 이 형식을 제자들 위해서 정하였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소 표현의 변화는 있었다고 하지만, 불교인은 언제나 이 '삼보귀의'로서 믿음을 표명하는 전형으로 보전해 왔다.

그 귀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들은 당연히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가르치신 부처님의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

아함부(阿含部)의 한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한 후 얼마인가 지나서 여전히 보리수 밑에서 혼자 앉아 이런 생각에 잠겼다.

“존경하는 것이 없으며 공경하는 것이 없는 생활은 괴롭다. 내 이제 어떤 사문, 혹은

은 바라문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가까이 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부처님도 의지없는 인간의 삶이 가지는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해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자귀의(自歸依)라는 것
부처님은 사람이 의지할 곳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통해 가르쳤다. 어느 때는 사람은 의(依)를 구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고, 어느 때에는 자기만이 자기의 귀의처



지난해 연등축제 연등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있는 사부대중들. 삼귀의는 법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이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할 것을 다짐하는 서원이다.

궁극적인 의지처가 아니며 부처님 역시도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이지만 추구해야 할 의지처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은 “그대의 궁극적인 의지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의(依)없이 존재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한 경전의 구절에는 “집착하지 않으며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전에는 “그는 무의(無依)하며 다른 것에 인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귀의(自歸依)'가 되며 이는 '자등명(自燈明)'이라해도 무방하다. 더 일반적인 표현을 들면 '자주(自主)'이다. 이것을 『법구경』에서는 “자기의 귀의처는 자기 뿐이다. 다른 곳에 귀의처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법귀의(法歸依)라는 것
그러나 후반의 가르침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자기를 의지처로 한다는 것은 멋대로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그 무서움이 원수구와 같다고 말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물결치는 격정의 폭풍 그것은 번뇌가 틀림없는 것이지만 이 격정의 폭풍에 대한 무서움을 부처님은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자귀의'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는 한바퀴를 돌아 '법귀의(法歸依)'의 가르침이 되며 '자주'의 길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법에 의지하는(依法)' 길

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의지할 가치있는 자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통제할 수 있는 자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통제하는 방법은 결국 법에 의지해 자신을 정돈한다는 뜻이 된다. 그것을 부처님은 '자귀의', '법귀의'라고 설하신 것이다.

삼보귀의(三寶歸依)라는 것
이와 같이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부처님과 조사들은 “그대가 의지할 곳은 사물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며 다만 법 뿐이다”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이 '법'을 불교인의 생활실천에 맞도록 세웠다. 불(佛)과 법(法)과 승(僧)의 삼보(三寶)에 대해 진심으로 귀의의 마음을 표시할 것을 불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례로서 확정한 것이다.

법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며 쉽게 우리들의 생활에 실천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법의 구현자로서의 부처님을 나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내세우며, 그에 대해 진심으로 귀의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법을 실천의 도리에 맞춰 가르친 부처님의 교법을 우리 러보다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귀의하며 받든다.

그리고 가르침을 믿고 행하려고 서로 돕고 실천에 힘쓰는 장로서의 승(공동체)도 진심으로 귀의하며 받든다. 그것이 '삼보귀의'의 다.

즉 불교인들의 의지할 곳을 요약하면 '법에 의지하는 것', 넓게 펼치면 '삼보귀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道を 얻으면 차별하지 않으니 儒者は 불법의 참뜻을 모른다

『유석질의론(儒釋質疑論)』은 함허 득통 스님의 저술이다. 당시 불교를 배척하는 데 앞장선 정도전의 <불씨잡변>에 대한 반박문처럼 느껴지는 <유석질의론>은 상권이 전문과 7개의 문답항을, 하권이 역시 전문과 12개의 문답항을 담아서 상-하를 합치면 19개의 항으로 짜여져 있다. 질문과 답을 함허 스님이 설정한 것이지만 그것은 창작이 아니고 당시 조선 사회의 유교와 불교관을 객관화한 것이라는 특이점이 있다.

오늘 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유석질의론>은 비교종교학적 특색이 생생하며 유교와 불교의 이론을 꿰뚫고 있다. 본지가 역문을 게재하는 이유도 이런 장점들이 높이 평가, 불교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편집자주>

『유석질의론』 상권 전문 요약

대체로 성인이 서로 계승해 세상을 다스린 큰 가르침에는 유자(儒者)가 있고 노자(老舍)가 있고, 불자(佛者)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삼교(三敎)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삼교의 도(道)는 모두 마음에 근본한다. 그러나 유자는 자취(迹)를 전공했고, 불자는 참(眞)에 계합했으며, 그 두 사이를 제점해 교점(膠粘)한 자는 노씨의 도(道)이다. 무엇을 참이라 말하고, 무엇을 자취라 말하는가. 밝히고 깨우침을 참이라 말하고, 세상 다스리는 것을 자취라 말한다.

자취라 하는 것은 형이후자(形而後者)로 정(情)이니,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하며 나아가 덕업(德業)을 닦음이 다 이것이다. 닦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효과에 이를 수 없으며, 효과가 없다면 세상은 어지러워 진다. 그러므로 성인의 가르침이 이 보다 급한 것이 없는 것이니, 그 까닭에 자기의 몸을 닦고 집안을 정제하며 천하가 평화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참이라 하는 것은 형이상자(形而上者)로 성(性)이니 그 본체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며, 그 밝음은 또한 시작이 없다. 신령해 다함이 없으며 오묘해 작위함이 없이 삼제(三際-과거 현재 미래, 곧 시간)를 다하고 시방(十方-곧 우주 공간)에 뻗어 담연히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여기에서 밝히고 깨우쳐 대가(大覺)에 이르시니, 그 몸은 성색(聲色)으로 구할 수 없으며, 그 마음은 사의(思議)로 미칠 수 없다

또 부처님이 세간에 응(應)하심이 마치 봄(春)이 만국에 행하며, 달 그림자가 천강(千江)에 비추고 같은데, 하나의 풀과 한 방울의 물만 취해서 지극히 말하기를 “봄은 다만 여기에만 있을 뿐이며, 달은 다만 여기에만 있을 뿐이다” 한다면 어떻게 저 불과 달의 있는 곳을 안다 말

함허 스님은?



강화 정수사의 함허 스님 부도탑

함허 스님(1376-1432)은 21세까지 성군관 유생(儒生)으로서 경학(經學)을 공부하다 출가, 무학대사 밑에서 수학했다. 법명은 기화, 법호는 득통. 스님은 지공(指空)·나옹(懶翁)·무학(無學)의 3대 법맥을 잇고 있다. 함허 스님은 『현정론(顯正論)』 『유석질의론』을 지어 조선 초 대표적인 호불론자로 꼽히지만,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설의』 『금강반야바라밀경론(論)』 『선종영가집과주설의』 등 상당한 저술을 남기고 있는 선지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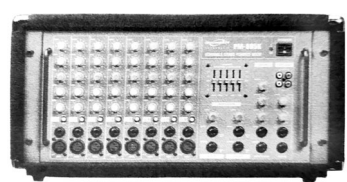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W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조대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 특징 :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민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민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공정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실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수여됩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유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